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 그리스도인의 선언”

경쾌한 발걸음으로 정의와 평화의 길을 걷다.

독립, 평화, 혁명

1919년 3월 1일, 우리의 선진들은 유구한 한반도 공동체의 주인들로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독립을, 세계만방에 대해서는 평화를 선언했다. 이 선언이 분출한 배경은 공화적 자유와 평화였으며, 선언의 결과인 모든 임시정부의 정체(政體)는 민주공화정으로서의 혁명이었다. 이 선언을 살아 내기 위해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른 선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

‘일본제국’이 한반도와 아시아를 능욕하다가 그들의 왕 3대를 채우지 못하고 패망한 역사는 부도덕한 패권과 이웃 공동체에 대한 탐욕을 체제에 내장하는 행위, 곧 거대 집단을 범죄 조직화하는 죄악이 자기 파멸로 치닫는다는 교훈이다. 타자에 대한 억압을 선으로 여기는 체제에게는 앞선 근대 문명과 자원이 오히려 스스로를 살라버린 빨감이었다.

우리 선진들은 국권을 되찾을 방도로 당당한 선언과 희생을, 찾아야 하는 이유로 혁명, 곧 이상(理想)을 채택했다. 무능한 왕과 귀족의 체제를 버리고 본래의 주인인 민(民)이 저작하고 이끌어가는 민주공화제의 여정이 곧 독립의 여정으로 제시됐다.

후일 “독립이 될 줄 알았냐?” 던 변절자들 만이라, 그 때 누가 일제 사멸이 26년 남은 줄 알았을까. 부당한 압제 아래, ‘좋은 것’과 ‘옳은 것’의 판단이 갈라졌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옳은 것’만이 실상이라는 믿음 위에 있다. 그 믿음을 굳게 지켜 현실로 만들어 낸 희생이 얼마나 고마운가.

지성, 사죄, 평화 연대

일본이 패전 74년을 맞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기미독립선언서가 천명한대로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붙들어 지탱하는 자의 중대한 책임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데 이르지 못하고 있다.¹⁾ 이는 그들이 반성과 사죄가 생존의 길이라 판단하게 하고, 그들의 도덕성을 격려할 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피해국들의 통합성이 미약함을 보고 사죄의 절실함을 도외시한다면, 아직도 파탄 난 집단 도덕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일본에 대하여 다시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구현하려면 스스로 강한 도덕 자산을 확보하고, 그들의 위력(威力)이 크든 작든, 도의(道義)와 인도(人道)에 입각한 평화의 체제로 돌아설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한 말과 행동을 격려할 것이다.

일본은 ‘패전 50년(1995) 총리 담화’ 에서 미흡하나마 식민 지배를 반성하였고, 남북한에 이를 표명했으며, 2010년 한일 양국 지식인 1,000명이 병합조약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임을 밝히자, 간 나오토 총리가 이를 받아들이고,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의 심정’ 을 표명하였다.²⁾ 이러한 발전은 기미독립선언의 높은 뜻을 실천하려는 양국 시민사회가 연대함으로 맺은 결실이었다. 2019년 일본의 지식인들은 1987년 한국의 ‘군부독재 정권 시대에 종지부를 찍은 민주혁명’ 으로 인해, 1910년 병합조약의 ‘전문(前文)도 본문도 거짓’ 이라는 핵심적 역사인식을 일본 총리가 받아들였다고 말한다.³⁾

‘도덕’ 과 ‘평화’ 라는 열쇠

일본을 탓하지 않겠다는 3.1정신은, 우리 스스로의 도덕적 자산을 돌아보라고 말한다. 그토록 인도와 정의를 갈구하던 집단이 현정을 유린하고 정치 권력을 탈취물로 여기는 체제를 가만둔다면, 압제에 항거한 선열들을 능멸하고 희생자들을 더욱 수치스럽게 하였다면, 공정한 질서를 기만하고 차별을 온존케 한다면 사죄와 망언 사이에서 흔들리는 일본 대중들의 마음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

1) ‘日本으로 하여금 邪路로서 出하여 東洋支持者인 重責을 全케 하는 것’

2) ‘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わびの氣持’

3) ‘2019년 일본 시민 지식인 성명’, “무라야마 담화, 간 총리 담화를 바탕으로 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야말로 한일, 북일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열쇠이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9&no=73775>

졌는가.

2013년, ‘양승태 대법원’ 과 ‘박근혜 청와대’ 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전범기업 상대 확정 판결을 고의로 지연시켜 피해자가 죽을 때까지 보상받지 못하게 한 중범죄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이른바 ‘한-일 위안부 합의’ 로 자국의 피해 당사자들을 모멸한 순간들은 참으로 어딘들 물어버리고 싶은 우리의 부끄러움이다.

또한, 지난 74년간 해소하지 못한 분단과 남북 적대관계는 일본이 승전국에만 머리를 조아리고 희생자들을 모독하는 어그러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이유였다. 이를 증명하듯, 남·북·미·중간에 평화가 예견되자 북·일 수교 논의도 되돌아오고 있다.

인간의 도덕은 완전무결의 영속이라기보다는 오류를 바로잡는 속도에 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부정한 정치권력을 수년이 못 되어 평화로운 촛불로 물리쳤기에, 그 힘으로 아시아 평화의 큰길을 열어가고 있기에 실리와 도덕 모두에서 일본에게 ‘사악한 길’ 에서 벗어날 동기를 선물한다.

교회여, 한국 교회여...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교회 밖의 싸늘한 시선이 하나님의 경고인 줄 알아야 한다. 100년 전 선배들의 신앙 유산은 물론, 후대들이 누릴 자부심조차 갉아먹고 있다. 떠나는 신앙인들을 다잡고자 하여도 정의를 외면하는 교회는 그들을 붙잡을 매력이 없다.

3.1정신은 불의한 정권과 이민족의 압제 모두를 거부하고, 타 종교인들과 공동선을 일으켜 공동체 전체에 생명을 불어넣은 신앙의 혁명이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불의한 정권을 축복하고 압제를 미화하는 망령에 사로잡힌 줄도 모르고 타 종교인들에게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 주님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를 깨달으라고 하신다(마7:3).

복음이 이 땅에 뿌린 ‘자유’ 를 부정하고, 교인들을 노예로 만들고 있다. 목회자들의 현금도둑질과 성폭행, 교회를 사유화하고 세습하는 기막힌 죄악을 보고도 저항이 없는 다수의 교인들은 주님이 다시는 메지 말라하신 ‘종의 멍에’ (갈5:1)를 지고 있다.

그러나, 복음은 일하신다. 예배당이 비어가는 이유는 성도들이 광장으로 나와 ‘소리치는 돌’ 이 되었기 때문이다.(눅19:40) 교회의 회복은 그들을 받아낼 신앙 역량에 달려 있다.

3.1혁명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 것 같지 않다. 오히려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우리가 갈 길을 시대를 앞서 제시하니, 이처럼 고마운 선물이 또 있을까. 우리는 경쾌한 발걸음으로 이 길을 걷는다.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1각까지.

2019년 2월 28일

3.1운동 100주년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 일동

강명순, 강병선, 강용성, 강춘근, 고상환, 고은영, 고희원, 고희정, 곽은이, 구 일, 권경욱, 권민수, 권영인, 권장희, 김경수, 김경수, 김다윗, 김대현, 김동신, 김동준, 김동휘, 김명경, 김문수, 김미선, 김미숙, 김민수, 김민정, 김민철, 김상준, 김상환, 김새뜸, 김삼숙, 김서현, 김석렬, 김선순, 김선홍, 김성균, 김성숙, 김성식, 김성욱, 김성인, 김성철, 김수한, 김순애, 김영식, 김영화, 김용만, 김원기, 김유신, 김운모, 김운배, 김은비, 김재환, 김재환, 김정민, 김정수, 김정태, 김정호, 김종미, 김종필, 김주열, 김중훈, 김지송, 김진명, 김진우, 김진한, 김찬성, 김초은, 김태훈, 김현섭, 김현식, 김현아, 김현용, 김현욱, 김현호, 김혜연, 김홍섭, 김 활, 김희경, 김희석, 나희량, 남 현, 남경희, 노종문, 류성희, 류아영, 목광수, 문기석, 문봉곤, 문석운, 문춘근, 문한나, 민경서, 민동길, 박건국, 박경아, 박문규, 박삼중, 박상규, 박상란,

박상문, 박선란, 박세범, 박수진, 박승호, 박영민, 박영주, 박원홍, 박은호, 박은희, 박정우, 박정호, 박제민, 박제우, 박종구, 박종명, 박종범, 박종운, 박종호, 박종훈, 박주연, 박창규, 박 철, 박태진, 박호연, 박홍규, 방정욱, 배규호, 배재수, 배정호, 배종석, 배한나, 백소망, 백영기, 백종국, 백현주, 변준희, 변희지, 서동진, 서한석, 서호석, 석기병, 석종준, 설성호, 소희섭, 손화철, 송규식, 송인수, 송지영, 송창훈, 송현자, 신덕범, 신동식, 신석환, 신성철, 신유식, 신현주, 신호영, 심혜린, 안성영, 안세현, 안애숙, 안재영, 안지영, 안현일, 양강열, 양경석, 양두선, 양미화, 양재석, 양태천, 여상현, 엄재섭, 오경근, 오동근, 오연재, 오인용, 오 정, 오정섭, 오혁진, 원민아, 원자영, 위국명, 유광선, 유영진, 유종영, 유 진, 윤민수, 윤성혜, 윤신일, 윤재윤, 윤진영, 윤진영, 윤환철, 이경탁, 이광택, 이광표, 이규철, 이기척, 이낙규,

이대행, 이동환, 이명기, 이미연, 이봉수, 이상민, 이상현, 이상화, 이상훈, 이선영,
이성근, 이성도, 이성은, 이세경, 이수호, 이수호, 이순교, 이승윤, 이승주, 이신형,
이영진, 이요한, 이용수, 이용은, 이원규, 이원영, 이원우, 이원정, 이윤정, 이재덕,
이재욱, 이정민, 이정연, 이정연, 이정필, 이정화, 이종민, 이지연, 이지은, 이진선,
이진오, 이진하, 이진호, 이창범, 이창현, 이창호, 이창희, 이학성, 이한민, 이항로,
이헌주, 이혁진, 이현선, 이형준, 이호준, 임민철, 임석규, 임왕성, 임은아, 임정남,
임종화, 임주영, 장근성, 장만식, 장성호, 전갑수, 전요셉, 전희경, 정구철, 정단비,
정명욱, 정병오, 정세힘, 정성훈, 정승관, 정시온, 정우림, 정유정, 정은미, 정창환,
조성돈, 조숙영, 조승철, 조은애, 조인진, 조한규, 조흥식, 조희준, 지예린, 진대중,
진영록, 진지한, 채미자, 채상병, 채희락, 천재욱, 최광열, 최광철, 최병배, 최숙희,

최승주, 최영복, 최유경, 최윤희, 최은석, 최 인, 최재영, 최진원, 최진호, 최태숙,
최현영, 최현주, 최효미, 하은희, 하태연, 한민석, 한상은, 한성준, 한원식, 허건영,
허 현, 현지윤, 홍만조, 황병구, 황석희, 황성기, 황송희, 황숙영 (최종 328명)